

현대건축의 표피에서 나타나는 다질성의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Multiplicity of Architectural Ski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uthor 김도운 Kim, Do-Woon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석사과정
김동진 Kim, Dong-Jin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

Abstract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which is individualizing and differentiating the world, makes time and space facilitate multi-layering in the contemporary society. It gives a large influence o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that inducing the visual and spatial experience. Also, It generates new images through the skin of architecture, which implies the contingent and fluid characteristics. These phenomenon show that various parameters are working on the architectural skin simultaneously. Such complexity make the structure of open space and diversity that are homogenized and synchronized. Like this, the architectural skin implies 'multiplicity': qualitative difference which is enable to change and create new images. This characteristic generates instant images changing variously and semantics constantly by the function of skin as a filter. Also, the architectural skin integrates or relocates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ous information and elements appearing in contemporary society in order to escape the customary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Furthermore,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mixture as a collection of sense has been recognized as one image. This image of mixture consists of one unified continuous integration and extend the meaning of a fluid interface not just surface of the building. The skin of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is very technical, so its meaning and role is expanded as a complex that exchange interaction. This means that the skin itself has functional elements of the integrated multiple skin to assist. Also it can form a multi-layered relationship and act as a wide range of interfaces depending on the perception of the observer. Therefore the multiplicity of the architectural skin indicates the importance as a boundary that generate images of new life through the sensory perception and implicit force. And it shows potential as the intermediary to try to communicate.

Keywords 표피, 상호작용, 복합체, 다질성, 감각
Skin, Interface, Complexity, Multiplicity, Sense

1. 서론

현대사회는 디지털 테크놀러지의 발달로 인하여 시공간이 다층적으로 변화하여 건축의 표피가 개별적이며, 차별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건축의 표피에 다양한 매개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입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런 복잡성으로 인해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을 내포하는 표면을 형성하고, 시각적인 체험과 공간적 체험을 동시에 하는 현대건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들은 건축적 표피들이 표면적인 해석에 의존한 형태의 발생과정에 치우쳐있다. 또한 단편적인 형태 특징의 분석에만 집착할 뿐 건축에서의 표피가 가지는

내적인 특질과 함께 본연의 총체적인 의미와 개념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축에서 오브제들은 더 이상 그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만큼 결정적이지 않다. 이는 시간에 따라 변화가능하며 잠재성을 지닌 전자매체에서의 네트워크의 장(field)이¹⁾ 이루어는 영역처럼 더욱 포괄적인 관계성을 가진다. 동시에 추상적인 실체들로 대체되어 관찰자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확장되는 공간에 침투하려는 욕망을 가능하게 한다. 표면을 통해 서핑하고, 검색하거나 표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에 표면의 구축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eau@empas.com

1) 바트 루스마는 현대 도시를 바다에 비유하며 때로는 보이지 않는 흐름과 다수의 장이 형성하는 양으로 구성되며 변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Bart Lootsma, Diagrams in Costumes, A+U 9903, 1999, p.98

다질성을 내재한 건축적 표피란 다양한 방식으로 건물에 담긴 특질들이 계열화되고 통합된 상태를 나타내며,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들이 펼쳐지는 장(field)으로서의 표면을 의미한다. 건축의 표피를 통해 발현되는 다질성의 특성들은 내·외부의 복합적인 관계들을 연속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다질성으로 인해 달라지는 표피의 경향은 투명성, 가벼움을 추구하던 근대 예술·건축의 주요 주체를 넘어서 재료의 혼성과 관찰자로부터의 재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확장해 간다. 더 나아가 건축의 표피가 공간적 두께감을 형성해 새로운 공간성과 새로운 사고 체계를 통한 시지각적인 효과를 표현하고자 한다.²⁾ 현대건축의 표피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인해 비물질적이고 다층적인 기능과 내적 의미를 확장하고 있으며, 균질화되고 동시화하는 열린구조의 공간을 만드는 매개체가 되고, 건축의 다양성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³⁾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건축의 표피에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관습적인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보와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다양한 특질이 내재된 다질성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다. 건축의 표피가 단순히 형태적 차원을 넘어 관찰자와 상호 관계적인 측면에서 독자적인 프로세스와 함께 표피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특질을 표현한 것으로 사료되는 현대건축가 이토 토요, 장 누벨, 헤르조그 & 드 뮌른, SANAA, 소우후지모토의 작품들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건축적 표피에서 드러나는 내재적 복수성과 다질성의 발현을 통한 구현 특성을 분석하여 건축의 표피에 내재된 다질성의 특성과 가치,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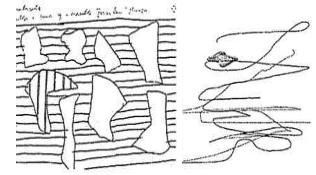
2. 다질성의 의미와 건축적 표피의 인식변화

2.1. 다질성의 정의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을 통해 새롭게 해석한 기존의 주름개념은 '하나이면서 무한한 세계의 속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이라 말하며 개별화되는 고유한 특성들이 내적으로 접혀있다는 주름의 이미지를 통한 하나의 형태 언어로 보여진다.⁴⁾ 이와 같은 현상은 내적 잠재성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이며 램쿨하스의 펠트와 같은 조직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원초적인 질료의 흐름과 같은 속성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다질성(multiplicity)⁵⁾과

2)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건축과 감각, 김훈 역, spacetime, 2013, pp.48-49
 3) 강혁, 근대주의 이후의 건축 공간의 변모, 건축역사연구, 제16권 2호, 2007.4, p.35
 4) 임동연, 들뢰즈의 사건을 중심으로한 폴딩건축의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 제18권 9호, 2002.10, p.199

도 유사한 특성을 보여준다.⁶⁾ <그림 1> 이는 독특한 구조와 하나의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를 통해서 대상의 내적인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체가 하나의 외연을 가지지만, 질적으로는 다양한 이질적인 차이들이 통합되어 전체의 상을 연속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모습과 유사하게 연속성을 갖는 다질성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Rem koolhaas, 펠트, 펠트-탈조직화의 상태

2.2. 복합체로서의 현대건축

다양한 특질을 내포하는 다질성은 램 쿨하스(Rem-Koolhaas)의 유럽연합 깃발을 재해석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유럽연합 깃발에서 다양한 각국의 개성이 모두 소거되고 추상적인 색과 상징들로 통합되어 바코드처럼 만들게 되었다. 바코드를 통해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지만 이것이 개별적인 요소들의 특징을 소거하는 방식이 아님을 의미한다. 하나를 이루면서도 다양한 특성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 즉 다질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제안으로 보인다. 그에게서 발견되는 조직방식은 거대한 외연을 가지지만 내부에는 다양한 성격의 요소들이 분산되어 자의적으로 배치된다. 제브루그 해양 터미널(Zeebrugge Sea Terminal)⁷⁾ 프로젝트는 외부의 다양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건물내부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 이 내부의 조직들은 건축과 내부의 상태를 안정되고 지속적인 상태로 보기보다는 일시적이고 다양한 충격들이 유입되며 충돌하는 역동적인 상태로 인식하게 한다. 그는 건축적 표피를 일종의 용기에 담긴 형태를 통해 신체와도 같은 불안정한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혼재, 실내의 투시도에서 보이는 거대한 내부의 모습 등 다양한 요소들이 만



<그림 2> 표면을 통해 다양한 특성을 유지·통합시키고, 반응하면서 단일한 전체상을 획득하는 상태

5) 다질성(multiplicity)은 외연이나 양적인 상태보다는 내적인 속성을 지칭한다. 김락훈, 램 쿨하스 건축의 다질성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논문, 2005
 6) 김락훈, op. cit., 2005
 7) 램 쿨하스가 벨기에 제브루그에서 1989년에 진행한 이 터미널은 복합적인 프로그램과 하부에는 바다에 연결되는 선착장과 육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건물로 유입되는 모습이다. 특히 단면에서 복합적인 프로그램들이 집적된 모습이 투영되며, 반대로 표면은 매우 단순한 헬멧과도 같은 형태이다., 김락훈, op. cit., 2005

드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건축적 표피를 통해서 단면의 이질적인 공간구조와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투영하여 다양한 특질을 보여주는 복합체로서의 건축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코치 플래그십 스토어(Coach Flagship Store) 프로젝트는 실제적인 프로그램과 의미의 특성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복수성을 건축적 표피를 통해 투영하며, 새로운 공간성과 프로그램을 담은 경계면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그림 2> 건축적 표피가 자기 발생적, 랜드스케이프, 주름, 기계, 다이어그램 등의 개념을 통합시켜주는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자율적 생성원리로서 실현되고 있다.⁸⁾ 건축적 표피에 내재된 복수성은 새로운 표면의 공간으로의 가능성을 생성하며 새로운 건축 방법론과 관계성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램 쿨하스의 건축적 표피는 내적다양성에 대응하며 이들을 수용하는 구성방식은 전통적인 조화나 근대적인 통합도 아닌 복합체로서의 건축을 보여주고 있다. 복합체로서의 표면의 특징은 내재된 복수성으로 인해 내부의 특질을 반영하는 스크린으로서 작용한다. 관찰자를 통해 달라지는 인식과 프로그램, 다양한 행위들이 중첩되고 공존하는 의미의 발생기제로서의 표피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다질성은 내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체가 유지되는 미묘한 상태의 표피를 구성하게 된다. 표면을 통해 개별적인 요소들이 연속성을 가지게 되고, 개개의 특성은 유지하면서 내재된 복수성들을 통합하게 되는 것이다.

2.3. 내재적 복수성을 통한 건축적 표피의 인식 변화

바우하우스의 모홀리 나기의 말을 인용하면, “경계는 유동적이며, 공간을 흐름-즉, 여러 관계들의 무수한 연속체로서 표현된다.”라며 표피와 공간의 연속적인 관계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⁹⁾ 이는 내적인 성질과 특히 다양한 형태를 사이에서 내적 동형성을 발견하는 위상 기하학의 특성과도 맞물린다. 그러나 건축적 표피의 내재적 복수성은 그동안 단절적으로 생각되어 온 형태들 사이를 연속적으로 사유하며, 이것들의 변이를 가능하게 하는 내적 특성을 나타낸다. 위상기하학의 의미와도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만들어내는 질적 다양성에서 그 의미가 다르며, 복수적인 특성을 표면을 통해 반영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내적인 차이가 만들어 내는 내재적 복수성의 발현은 탈 물질화 경향과 함께 이미지소비와 산업전반의 다양한 특성을 표면에 담은 표면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관찰자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공간의 이미지체계

내에서 이미지를 소비함을 뜻한다. 관찰자는 이미지체계에 담긴 특성들을 재해석 하게 되는 과정과 함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상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로 건축적 표피의 물질세계의 다양성을 표층을 통해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간의 눈과 지성보다 더 깊은 심층을 투시하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특질들과 내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그림 3> 근대 이후의 공간은 근대성을 지배한 시각위주, 객체화된 대상으로서의 공간에서 벗어나 인간의 신체와 오감등의 심층적인 부분을 적극 개입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들이 표피의 인식자체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관찰자는 총체적인 체험을 위해 감각의 측면에서 재해석을 하게 된다. 건축적 표피가 매 국면마다 다른 표면과 공간성, 행위를 반영하는 캔버스가 되는 것이다.



<그림 3> 평면성을 통해 깊이는 면으로 대체되고 심층을 드러내는 표면의 형성

현대건축의 표피는 기술적이고, 상호 교환적인 복합체로서 그 의미와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은 표피 자체가 다른 통합된 여러 표면들이 보조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들을 가지게 되며, 통합적인 매개체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건축적 표피는 단순히 물질적 차원을 넘어 건물의 내·외부 공간, 나아가 도시 공간 속에서 의미를 생산하는 이미지 표현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건축적 표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영적 영상을 만들어내는 특성을 보이며, 환영적 표피¹⁰⁾로서의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즉각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건축적 표피에 내재된 복수성을 표현하고 건물을 이루는 부분 요소들의 상호 의존성¹¹⁾을 통해 지속적인 의미 생산과 중재가 가능해진다. 내재적 복수성을 통해 건축적 표피가 인간과 환경과의 다양한 관계형성의 장으로서의 작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내재적 복수성을 통한 건축적 표피는 앞서 언급한 램 쿨하스의 내적인 다양성에 대응하여 표피를 통해 내/외부의 관계를 변화 시키고 있다. 이는 관찰자들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건축적 요소들의 다양성들이 표피에서부터 공간적 특질의 차이를 만들어 내며, 구축의 방식과 의미의 전환을

8) 정인하, 현대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p.13

9) 서승현, 유기적 경향의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불확정적인 경계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0권 1호, 2008.5, p.166

10) 손화정, 공간 이미지 표현으로서 표층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2

11) Leatherbarrow, David, Mostafavi, Mohsen, 표면으로 읽는 건축, 송하업·최원준 역, 동녘, 2009, p.261

통해 내재된 복수성을 통합하는 복합체로서의 다질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2.4. 건축적 표피의 인식 특성과 다질성

해체주의로부터 시작되어 비정합적인 공간들로서 표피는 불확정적인 관계 속에서 복합적이고 혼성된 다의적(Ambiguity)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¹²⁾ 내·외부의 경계를 건축 그 자체에 많은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며, 유동적인 공간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건축적 표피의 '다질성'에 대해 예고하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현대건축에서 건축적 표피는 경계면으로 인식됨으로써 근대주의 건축의 외피와는 다른 이질적인 새로운 관계성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미디어와 네트워크의 발달은 건축적 표피를 가볍고 투명한 이미지로 표현하게 한다. 이러한 경향은 찰나의 표현, 공간의 확장성, 중심성의 해체를 통해 건축적 표피와 연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만들게 된다.

현대건축은 디자인 프로세스의 인위적인 위계성을 소거하고 직관/감각적인 프로그램의 재정립을 통해 새로운 의미론적 생성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과정은 건축적 표피를 통해서 인위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추상화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초기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관계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새로운 관계성은 시간과 공간의 다층화를 촉진하며, 이때 공간은 균질화되고 동시화 하는 특성을 갖는 한편, 중첩되고 다층화되는 차별적인 모습을 건축적 표피를 통해 투영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적 표피를 통해 투영되는 이미지는 관찰자의 시지각적 재해석으로 인해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게 된다. 즉, 건축 형태 자체가 의미의 생성체라면, 건축적 표피는 다양한 맥락을 프로그램의 재해석과 관계성의 확장을 통해 인터페이스화 된 매개체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Ito Toyo의 'Meiso no Mori Funeral Hall' 프로젝트를 보면 건축적 표피의 적극적인 접기의 방법을 통해 공간의 표면을 감싸면서 다양한 속성들이 내적으로 끝없이 병치·혼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그림 4> 굴곡진 지붕면이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내부의 건축적 요소들과 프로그램등의 복수적인 성격을 내재하는 건축적



<그림 4> Ito Toyo, Meiso no Mori Funeral Hall-

지붕면의 적극적인 변형이 표면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내부의 요소를 투영하고 있다.

12) 서승현, op. cit., p.164

간 속에서 복수성을 지닌 건축적 표피는 의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며, 프로그램의 모호성과 재정립을 통해 그 의미를 확장한다.

현대건축에서 내재적 복수성의 구현을 통해 건축적 표피는 여러 겹의 켜와 기능을 갖는 새로운 공간의 켜로 구성하며 다질성을 발현하게 된다. 그렉 린(Greg Lynn)은 다질성의 체계를 '등방형 다중표면'이라고 부르며 하나의 표면이지만 복수의 힘들이 충돌하여 만드는 다중적인 표면의 상태를 제시한다.¹³⁾ 기존 평면구성의 위계를 탈피한 바다면의 변화 등 건축적 요소들의 변화를 통해 다질성을 내재한 표피와 공간은 이전보다 활성화되며, 유동적인 열린구조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관계성의 확장과 새로운 의미의 생성을 통해 무질서적이고 불확정성, 비결정성, 예측불가능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표피와 공간과의 다양한 관계성의 확장을 보이고 있다. 내재적 복수성을 통한 건축적 표피의 인식변화는 그 표면으로부터 공간과의 관계성의 의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Melbourne Federation Square'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정도로 반복되는 요소들의 집합과 배열들이 건축적 표피를 통해서 투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표면의 깊이감이 확대되고 이중으로 나뉜 공간의 켜들이 입사된 오브제의 패턴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그 결정의 격자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혼성적인 감각을 보여주며 비물질적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그림 5> 즉, 반복적인 투영성을 보여줌으로써 건축적 표피 내부의 구조와 물질성을 파악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건축적 표피의 물성은 한층 더 중요해지며, 시각을 넘어 촉각과 다양한 감각들의 자극을 유발한다.



<그림 5> LAB architecture studio, Melbourne Federation Square- 내재된 특성들의 배열과 물질성을 투영하는 표피

건축적 표피의 달라지는 인식체계의 변화는 현대사회에서 변이되는 시간, 행위 또는 환경의 개입으로 인한 경계가 불명료해지고,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복합적인 기능들을 표면을 통해 구현한다. 이러한 복수적인 특질들을 통합시키는 다질성은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현상들을 반영하는 매체적인 역할과 함께 복합적인 프로그램과 기능들을 경계면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현대사회에서 건축적 표피는 경계면의 달라지는 인식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 환경, 즉 시간과 자연 또는 도시의 환경의 변화하는 모습을 투영하는 경계면의 불확정적인 상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불확정적인 상태는 다양한 속성들을 연속적으로 병치, 중첩시키고, 시지각적인 경계영역을 확장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위와

현대사회에서 건축적 표피는 경계면의 달라지는 인식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 환경, 즉 시간과 자연 또는 도시의 환경의 변화하는 모습을 투영하는 경계면의 불확정적인 상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불확정적인 상태는 다양한 속성들을 연속적으로 병치, 중첩시키고, 시지각적인 경계영역을 확장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위와

13) Greg Lynn, Folds, Bodies & Blobs : Collected Essays, 티메카, 1998, p.163

같은 현대건축의 표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경향을 바탕으로 다질성을 통한 건축적 표피의 변화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뉴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건축적 표피의 물질세계의 다양성을 표피의 다질성을 통해 확장하고 있다. 인간의 눈과 지성보다 더 깊은 심층을 투시하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특질들을 표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비물질화를 통해 달라지는 건축적 요소들의 관계성 변화와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이 서로 중첩·병치되어 개개공간들의 특이성의 구현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둘째, 다양한 사건들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적 역할로, 불확정적인 경계면을 통해 내·외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매체성을 띄게 된다. 공간뿐만 아니라 경계면의 유동성을 통해, 관찰자들을 경계의 영역으로 편입시켜 표면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역할들을 점점 더 확장시키고 있다.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경계의 형성이 내재된 복수성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건축적 표피는 재료의 물성과 건축적 표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내·외부 공간을 역전시키거나 불륨을 형성하여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표면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내·외부의 이미지와 공간구조, 기능들은 표피를 통해 반복적인 투영성을 보여준다. 건축의 개념적 특성만이 아닌 실질적인 공간성을 지니고 있는 복합적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표 1> 건축적 표피의 인식특성에 따른 내재적 복수성과 구현방법

내재적 복수성	건축적 표피의 인식 특성	내재된 복수성의 구현 방법
경계면의 상호 작용을 통한 매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사건과 정보들을 반영하는 캔버스로서의 매체성 사용자의 선택과 행위에 따른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재료적 변형이나 미디어에 의한 새로운 건축적 표현 고정적이지 않는 유동성과 일시성을 통한 변화 관찰자를 통해 재해석되는 상호작용성 	다층적 매개체로서의 상호작용성
모호한 경계면의 반복적인 투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의 이질적인 속성들이 내·외부에서 이접·총돌 프로그램의 연속적인 병치와 중첩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유동성 사용자의 행위와 그 곳에서 담기는 사건에 의해 재구성 주변환경에 감응하면서 다양한 이미지가 투사되고 중첩 	경계면의 불확정성/ 다층적 매개체로서의 상호작용성
통합적인 매개체로서의 인터페이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의 특성을 활용하는 투명성, 투과성, 반사성을 통한 내·외부 공간의 변화 개별적인 요소들의 특성을 유지, 일체화된 이미지 생성 특정한 옹도로 규정되지 않은 불확정적인 공간의 잠재성 내·외부의 이미지와 공간구조, 기능들을 내포하며, 혼합과 가축성 유발 건축의 외피에 불륨이 형성되어 공간성을 생성 	개개요소들의 연속성/ 경계면의 불확정성

3. 현대건축의 사례분석을 통한 건축적 표피의 다질성

현대건축에서 건축적 표피는 내부의 다양성을 표피를

통해 투영하며, 건축 개개의 요소들과 연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건축적 표피가 매개적인 경계면으로 작용하여 내재적 복수성들을 잠재적으로 통합시키고 다질성을 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서로 다른 건축 표피의 인식특성을 통해 내재된 복수성의 구현방법이 달라지며 많은 현대건축가들의 다양한 독자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표피를 생성하고 있다. 내재된 복수성의 구현 방법을 통한 접근을 바탕으로 새로운 건축적 시도 및 실험과 개념적 접근을 보이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 같은 특성이 두드러지는 herzog & de meuron, jean nouvel, ito toyo, sou fujimoto의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표피와 공간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통해 내재된 복수성의 구현 방법을 통해 건축적 표피뿐만 아니라 건축 전반의 구성들에 대한 구현 방법 및 특징을 중심으로 그 표피의 다질성을 분석하고 내재된 다질성에 대한 새로운 특성 및 감각적인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건축적 표피의 유동성과 Ito Toyo의 건축

이토 토요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상적인 신체와 현실적인 신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 중 가상적인 신체는 현실이면의 보이지 않는 것과 교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신체와 감각의 경험이 현실적인 신체와 결합하게 만드는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다. 또한, 감각의 경험을 통해 건축의 의미가 유동성을 띄게 됨을 의미한다. 그는 정원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며 공간과 사용자의개인적인 경험이 맺는 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벤트를 수용하는 건축적 행위를 텐트에 비유하며 인간의 다양한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공간¹⁴⁾과, 어떠한 위계적 질서 없이 모든 변화가능성을 내포하는 정원으로서의 중성적 성격과 다양성을 띄는 유동적 공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간에 흐름이 내재하는 힘, 즉‘유동성’¹⁵⁾을 건축에 부여하려는 건축 작업을 하고 있다. 그의 건축은 기술, 재료에 관한 구체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을 재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관습적 위계를 탈피한 구조의 중성화를 통해 열린 내부공간을 가능하게 하고, 이질적 요소들이 유동적으로 흐르게 하였다.

이토 토요의 건축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사용자의 행위와 공간, 그리고 자연환경에 반응하는 유연하고 모호한 경계를 형성한다. 건축적 표피는 내·외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확정적인 성격을 띄며, 상이하고 독립된 공간적 속성이 만나는 점점인 표피에서 공간적 궤적을 유연한 경계영역으로 변화시킨다.

14) Toyo Ito, On Fluid Architecture, SITE, 1991, p.21

15) 한태권, 이토도요 건축의 공간구성에 나타나는 ‘유동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3

<표 2> 경계면의 유동성과 Ito Toyo의 건축에서의 다질성

내재된 복수성의 구현 방법	특징	표피의 다질성
 개개요소들의 연속성 Sendai Mediatheq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층의 '판'을 관통하는 튜브는 물리적 경계를 소거한 무주 공간 형성하여 구조적 역할을 하는 기둥의 관습적인 관념을 탈피 열린 평면과 튜브를 사용자의 행위에 따라 변화되는 프로그램 	비고정적 요소의 가변성/ 열린 내부 공간의 유동성/ 투명한 외피 중첩을 통한 건축 경계 소거/ 내·외부를 상호 투영하는 표피
 다층적 매개체로서의 상호작용성/ 경계면의 불확정성 Sendai Mediatheq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한 표피의 중첩을 통해 튜브 구조와 슬라브만 투영하여 혼성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투명한 이중 외피는 내·외부의 미묘한 시각적 구분효과 창출 표피의 물성의 연속적으로 접합을 통한 이미지의 중첩 	
 개개요소들의 연속성 Serpentine Pavill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면 구조이자 프로그램으로 반외부적 공간 체함이 가능함 서로 교차되어 배치된 격자구조의 절단면이 공간의 투명성을 제공, 구조적 내력벽 없는 열린 평면의 상호작용 	두께를 가지는 외피 구조의 공간화/ 공간의 투명성/ 경계면의 유동성/ 숲을 연상시키는 격자구조의 시각적 착시
 다층적 매개체로서의 상호작용성/ Serpentine Pavill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들을 외부로부터 자연스럽게 유입하고, 외피 역할을 하는 격자 구조를 내부공간으로 확장 및 불규칙적 반복, 배치하여 시각적 착시와 공간성을 지니게 됨 	
 개개요소들의 연속성 Bruges Pavill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조직이 투명한 외피를 만나서 잘려나간 절단면의 입면화 입체적인 실내공간이 외부를 향해 연속되며 변형되어가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고정된 구성 	비확정적 성격/ 이미지의 변형을 통한 시간성/ 다층의 이미지 형성/ 흔적의 모호성
 경계면의 불확정성 Serpentine Pavill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단면에 형성화되는 개구부의 형태는 실내공간의 속성을 반영한 듯 부정형, 불규칙한 구성 입체적인 실내공간인 외부를 향해 연속되며 변형되어가는 모습 	
 경계면의 불확정성 Bruges Pavill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직/선형적인 형상을 지닌 기둥의 흔적의 모호성 가변적 프로그램의 기능을 제한함 공간/구조의 위계가 일체화 	비물질적, 비확정적인 성격/ 비선형적, 면적인 형상/ 유기체적 이미지 형성/ 유연한 경계영역 형성
 다층적 매개체로서의 Taichung metropolitan op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의 수용이나 행위를 발생시키는 공간구성요소로서 변화된 기둥과 단면의 구성 입체적인 실내공간인 외부를 향해 연속되며 변형되어가는 모습 표면과 공간이 연속된 유기체로 인식 내·외부의 새로운 관계형성 	
 상호작용성 Taichung metropolitan opera		

3.2. Jean Nouvel의 비물질적 모호한 경계의 형성

장누벨의 인터뷰중 상황은 항상 변하며, 그에 반응하여 고정적이지 않고 건축의 움직임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가변적 이미지를 창출하며 주체·객체와의 감각적 접촉과 거리감의 소멸을 의미하게 된다. 그의 건축은 건축적 표피를 통해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실체와 비실체간의 관계형성과 비물질성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누벨의 건축적 표피가 점점 더 다중화되

고, 혼합되는 특성을 보이면서 이미지를 반사하는 재료의 물성이 침식하는 물성을 가지는 재료의 비물질화로 나타나고,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전달하게 된다.

<표 3> Jean nouvel 건축에서 나타나는 표피의 다질성

내재된 복수성의 구현 방법	특징	표피의 다질성
 다층적 매개체로서의 상호작용성 Copenhagen concert H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환경의 변화에 상호작용 표피 자체가 유기체적인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가짐 건축의 통합된 시스템을 내재 	유기체적 이미지 형성/ 다층의 이미지 형성
 경계면의 불확정성 Copenhagen concert H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각적인 시각적 경계면 형성 다층적 이미지 생성 관찰자와 건축적 표피와의 의미적 관계 형성 살아있는 유기체적 이미지 생성 주변환경의 변화에 상호작용 	가변적인 시각적 경계면의 형성
 다층적 매개체로서의 상호작용성 construction to start at european patent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면적 합성을 통해 무게감이 사라지고 하나의 혼합체적 이미지를 형성함 공간적 깊이감과 실제감의 모호성과 시각적 확장적인 성격 	간섭을 통한 상호 투영성/ 이중적 커를 통한 투사적 성격/ 혼합체적 플라주 이미지 형성
 경계면의 불확정성 construction to start at european patent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과 환경의 위계소거 내/외부 공간의 시각적 위계소거 공간적 깊이감과 실제감의 모호성과 시각적 확장성 외부 환경의 파편화를 통해 내부공간이 끊임없이 변화함 	
 경계면의 불확정성 Midi station in brusse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깊이감과 실제감의 모호성과 시각적 확장적인 성격 단면의 기울기 변형을 통해 외부환경을 끌어들이는 경계면의 인터페이스적 역할 	열린 경계의 시각적 상호작용/ 이중적 커를 통한 투사적 성격/ 건축의 실체가 오버랩되어 단일상 획득/ 변화하는 환영적 이미지 형성
 경계면의 불확정성 Midi station in brusse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한 외피의 중첩을 통한 인식적 경계의 소멸 외부환경과 외피의 시각적 이미지 중첩 시각적 부유를 통한 경계면의 시지각적 경계면의 확장 	건축의 실체가 오버랩되어 단일상 획득/ 변화하는 환영적 이미지 형성
 개개요소들의 연속성 Sofitel-Stephansd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턴화된 집적물의 첨가를 통한 재료 물성간의 대비와 친정 실험의 이미지화 내부로의 적극적인 접기 시간, 빛의 변화에 따른 내부공간간의 변화와 주변환경의 유입 시각적 부유를 통한 공간의 시지각적 경계 확장 	다수의 다층의 주관의 상호작용하는 반투명적 경계형성/ 내외부의
 경계면의 불확정성 Sofitel-Stephansd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적 침투성 상징적 이미지로서의 표피적 의미의 생성 내부공간의 직접적인 표피화의 가능성과 공간의 이질적인 관계성 무의식적인 공간의 이미지 생성 	혼합체적 이미지 형성/ 혼성적인 감각의 다층적 이미지

장누벨의 비물질적 모호한 경계의 형성은 영역의 정체성에 대한 불명료로 인해 관찰자에게 건물만이 아닌 장소 그 자체에 재해석·재정의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내·외부와 관찰자간의 다층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3.3. Herzog & de Meuron의 혼성적인 감각의 인터페이스적 표피

헤르조그 & 드 뮈론은 건축적 표피를 독립된 커로 여기고 표피의 이미지화를 통해 외부와 기능적인 내부라는 이중의 관계를 형성한다. 표면의 깊이감을 통해 경계면의 감각과 관찰자와의 상호작용, 재료의 물성 교란, 촉각적 환상등의 표피를 통한 다양한 효과를 통해 하나의 총체적인 이미지를 생성한다. 반사되는 이미지와 물성의 조작을 통해 촉각적 환상을 만들어내며 표피의 깊이감의 확장으로 일어나는 감각경험은 실체와 허상의 모호한 경계의 형성과 관찰자의 상상력에 기반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다.

<표 4> Herzog & de Meuron 건축에서 나타나는 표피의 다질성

내재된 복수성의 구현 방법	특징	표피의 다질성
 개개 요소들의 연속성 elbphilharmonie hamburg nearing comple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주체에 따른 감각적 경험 다공적 형태의 표피는 외부의 무한히 반복되는 움직임 을 내부 공간으로 끌어들이 	다공성을 통한 내/외부의 상호작용성/ 몽타주적 이미지 형성/ 표면의 불확정성/
 경계면의 불확정성 elbphilharmonie hamburg nearing comple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픽셀화된 표면들이 추상적인 이미지를 형성함 표면의 다공성을 통해 경계 및 외피 공간의 불확정성, 몽타주적 이미지, 현상적 투명성이 담긴 표면을 형성 서로 다른 물성이 연속적으로 접함 	유기체적 이미지/ 다층의 이미지 형성/ 상호작용하는 투명성
 다층적 매개체로서의 상호작용성 1111 Lincoln-ro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환경과 내부의 요소들을 몽타주적 이미지로 합성 사건을 형성하는 유동성과 스케일의 이질감을 통한 대비 	프로그램의 세분화와 재조직을 통한 유동성/ 간섭을 통한 상호 투영하는 표피/ 내부의 이미지와 표면의 다층적인 관계형성
 경계면의 불확정성 1111 Lincoln-ro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면의 천장면과 내부의 요소들이 표면의 한부분으로 인식되면서 단일한 전체상을 획득함 단면의 큰 변화와 시간, 빛의 변화를 통해 유기체적 이미지 생성 	유기적이고 투명한 속성 표현/ 레벨의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의 유동성/ 연속된 열린 공간의 확장성과 가변성/ 비확정적 불확정성의 상태
 개개 요소들의 연속성 Vitraha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적인 공간으로 분리하고, 각공간을 코어를 중심으로 동일한 바닥 형상을 규칙적으로 적층함 구획한 평면과 달리 다양한 크기와 부피를 지닌 매스들을 불규칙한 방법으로 조합됨 	다층적 매개체로서의 상호작용
 다층적 매개체로서의 상호작용 Vitraha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개 공간의 특이성의 구현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 이는 기존 평면구성의 위계를 탈피한 바닥면과 표피의 관계 변화를 가능하게 함 	

헤르조그 & 드 뮈론 표피의 구현방식은 다공성¹⁶⁾적 특질과 디지털화 된 표면으로 기존과 다른 물질성이 부각되고, 표현성의 강화를 통해 혼성적인 감각이 담긴 인터페이스화를 구현하게 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면에

16) 다공성 : 공극에 의한 투명성으로 재료의 비물질화를 위한 인위적인 공극으로 투명성을 부여한다.

다층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인식적 경계의 강화를 통해 사용자의 다양한 감각을 유도하며 신체의 지각, 경험, 기억의 정도에 의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3.4.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통한 새로운 질서와 Sou Fujimoto의 건축

소우 후지모토의 건축은 자연적 모티브를 통해 유연함과 모호함등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는 부분의 건축이라고 지칭하며 “건축은 전체라는 형태를 띠지 않는 장소, 어떤 장과도 같고, 부분적이고, 미완이며, 항상 과정....그리고 부분과 부분의 모호한 연속체인 것 같은 건축”¹⁷⁾이라 말한다.

<표 5> Sou Fujimoto 건축에서 나타나는 표피의 다질성

내재된 복수성의 구현 방법	특징	표피의 다질성
 개개 요소들의 연속성 Musashino Art University Museum & Libr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롭게 배열되는 요소들의 관련적 세분화와 유동적인 재조직을 통한 접합 동선을 나선형으로 배치함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평적으로 병치하여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 미로와 같은 평면을 구성과 개구부의 중첩을 통해 시각적으로 개방된 내부 공간을 형성한다. 	이중적 커를 통한 투사적 성격/ 혼성적인 감각을 통한 공간감각 지각 특성/ 탈경계적 프로그래밍의 연속성/ 콜라주 효과를 이용한 모호한 깊이감
 경계면의 불확정성 Musashino Art University Museum & Libr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로운 배치에 따른 비의도적인 공간 형성과 유연한 경험을 만들어낸다. 내적으로 다양한 요소들과 프로그래밍이 된 표면으로 추상적인 재구성 인식주체에 따른 감각적 경험 구조와 가구의 경계를 허무는 채꽃이 형태의 벽 	다중심적 체계/ 다층적 반투명경계 형성/ 콜라주 효과를 이용한 모호성
 개개 요소들의 연속성 Design Serpentine Pavil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행위를 유발하는 잠재성 인식적 경계의 소멸을 통해 나타나는 공간감각 지각 특성 표피가 내외부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내포함 대지와와 경계를 소거하여 다방향성 표면을 형성 	내·외부의 상호작용/ 내외부의 관계성의 확장과 예측 불가능성
 경계면의 불확정성 Design Serpentine Pavil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성과 프로그램을 부여함 도시적 외부공간의 연장으로 다양한 시시각적 영역 연계 가벼움의 특성은 시시각적 경험에 의해 전달되는 이미지를 형성 다방향성의 구조체를 통해 깊이감을 모호하게 함 	유기적이고 투명한 속성 표현/ 레벨의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의 유동성/ 연속된 열린 공간의 확장성과 가변성/ 비확정적 불확정성의 상태
 개개 요소들의 연속성 NA h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경계가 약화된 단면구성을 통해 3층 높이의 주거 건물에 21개의 바닥판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성함 계획의 초기 단계에 나무의 형태적인 측면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특성 	
 다층적 매개체로서의 상호작용 NA h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원도와 같은 표면 형성 중층으로 이루어진 각 공간들의 중첩을 통한 내부공간으로의 인식적 경계의 확장 기존의 바닥면과 계단이 지닌 위계를 모호하게 함 시각적 투명성을 가지는 공간의 수직, 수평적 상호작용 공간과 가구, 사용자 간의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관계 형성 	

소우 후지모토는 위의 표와 같이 건축을 구성하는 관계들이 새로운 관계성을 가지도록 구현하며, 서로 연속

17) Sou Fujimoto,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정영희 역, 디자인 하우스, 2012, pp.32-34

적으로 상호연결성을 갖는 표면을 통해 새로운 건축을 제안하고 있다. 모호성을 띄는 경계를 통해 주변과의 관계성과, 전체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부분들 간의 자유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는 부분들의 관계가 만들어 내는 우연성을 통해 공간의 복잡성, 다양성, 풍부함을 표현한다. 이러한 특성들이 인터페이스로서의 표피로 나타나며, 내·외부의 관계성의 확장뿐만 아니라 부분과 전체의 관계는 새로운 사고 체계를 만들어 낸다. 관계성을 통한 사고 체계는 독특한 공간의 질과 다중심적인 체계를 만들어내며 각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현대건축에서 건축적 표피는 그 자체가 대지에 펼쳐진 영역을 형성하거나 성격이 다양한 공간을 통해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경계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건축적 표피는 사람들이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적인 프로그램을 담게 되고, 다양한 시·지각적 영역간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활력이 생성되는 장소성을 형성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3.5. 소결

현대건축의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표면과 공간의 표현 방식은 다양한 물성과 공간과 내·외부의 관계를 통해 경계면 자체를 중심으로 내적 복수성의 통합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질적으로 풍요로운 효과를 만들어 내며 사람들의 지각 경험의 매개체로 작용하여 성격이 다양한 공간을 통해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표면을 형성함을 사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표 6> 건축적 표피의 구현특성을 통한 다질성의 의미

구분	내재적 복수성을 통한 표피 구현 방법			
	Ito Toyo	Jean Nouvel	Herzog & de Meuron	Sou Fujimoto
인식 특성	내·외부의 이미지와 공간구조, 기능들을 내포하며, 혼합과 가축성 유발하는 경계면의 유동성	비물질적 모호한 경계의 형성을 통한 내·외부와 관찰자간의 다층적인 관계의 형성	사용자의 다양한 감각을 유도하며 신체의 지각, 경험, 기억의 정도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시키는 인터페이스화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인한 다중심적인 체계를 만들어내며 각자의 경계의 모호성과 불확정적인 표피의 잠재성
특징	관습적 위계의 탈피와 구조의 중성화를 통해 열린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경계면의 유동성	비물질적 모호한 경계면을 통해 내·외부와 관찰자간의 다층적인 관계형성	물성의 조작을 통한 혼성적, 비물질적인 이미지 생성	내·외부의 우연한 공간구조와 기능을 내포하며 이미지들의 혼합과 가축성 유발
내재된 복수성의 구현 방법	이질적 요소들의 다층적 경계형성/ 중성적 경계면의 유동성	이미지 생성을 통한 경계 확장/ 이질적 요소들의 다층적 경계형성	표층을 통해 확장하는 다양성/ 시지각적 감각의 재구성	복합적 매개체로서의 인터페이스/ 표층을 통해 확장하는 다양성
표피의 다질성	단일재료와 독립 공간 불규칙한 수평적 배치 및 적층을 통한 상대적 공간 관계	다층의 이미지 형성하여 내외부의 혼합체적 이미지 형성	혼성적인 감각의 다층적 이미지 형성	내외부의 관계성의 확장과 예측 불가능성
다질성의 의미	불확정적 경계형성/ 중성적 공간의 확장성/ 비표상적 경계	불확정적 경계형성/ 다층적인 경계면의 유동성/ 시지각적 다양한 사건 생성	혼합체적 이미지 생성/ 반복된 이미지를 통한 매체성	다양한 행위를 유발하는 잠재성/ 혼합체적 이미지 생성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과 내재된 복수성의 구현 방법을 통해 표피의 다질성이 사용자와 내·외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발생하게 된다. 현대건축에서 건축적 표피는 불확정적인 경계면으로 작용하고, 가상적인 이미지나 윤곽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표피를 통해 내·외부간의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내재된 복수성들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하나의 연속적인 이미지로서의 표피의 다질성은 부분과 부분의 모호한 연속체로서 다양한 사건을 발생하며 잠재적인 통합을 이루며 다질성의 특성을 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현대건축의 표피에 내재된 다질성의 특성

내재된 다질성을 통해 나타나는 현대건축의 사례분석을 통해 보여지는 다질성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크게 불확정적인 잠재성과 중성적인 열린공간의 형성을 통한 경계의 확장성과 관계성의 확장을 통한 표피의 다층적인 의미생성, 내외부의상호작용을 통한 유동적인 표피의 상호침투성,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생성체로서의 표피로 그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불확정적인 건축적 표피의 잠재성

불확정적인 건축적 표피의 잠재성이란 불확실한 의미가 아닌 비결정적이며 여러 원인과 동기가 보완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즉, 현대 공간에서 보여지는 내재된 다질성은 다양성과 더불어 주위 환경과 사용자의 관계에 맞추어 경계면의 의미와 역할이 달라지는 것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7> 불확정적인 건축적 표피의 잠재성을 통한 다질성의 특성

특성	대표 사례		
	Sendai Mediatheque, Ito Toyo	Taichung metropolitan opera, Ito Toyo	Copenhagen Concert Hall, Jean Nouvel
다질성의 의미	European patent office, Jean Nouvel	vaulted flinders street station, Herzog & de Meuron	Kanagawa Institute of Technology Workshop, Junya Ishiga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작용하는 관계적 표피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미지 연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각적 경계면 형성 외부환경에 반응하는 감응체 행위 참여적 상호작용성 		
다질성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합체적 이미지 생성 자기 반응적 감응체 다층적인 이미지 생성 내·외부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통합시킴 유기체적 이미지의 형성 다양한 사건과 의미구조의 생성 		

위의 표와 같이 건축적 표피는 다질성을 통해 시간과 자연 또는 도시의 환경 등의 다양한 매개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유기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경계의 '명확한 경계에서 모호해진 경계'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며, 외연은 하나이면서 내부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통합된 상태를 보여준다.

불확정적인 건축적 표피의 잠재성은 영역의 정체성에 대한 불명료로 인한 관찰자나 사용자에게 영역에 대한 재해석 혹은 재정의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다. 이는 경계의 영역으로 생각될 수 있는 그것이 전통적인 것보다 내·외부와 관찰자들을 서로 서로 소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공간의 경계는 모호해지면서 상황이나 사용자에 따라서 다양한 사건과 끊임없이 의미 구조를 발생시킨다.

4.2. 중성적 공간의 경계 확장성

중성적인 열린공간 구조는 고정된 의미나 구조적 원칙으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관계들에 유연성이 작용하여 이질성, 시간성과 함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동반하게 된다. 이는 사용자의 행위와 사건에 의해 공간의 성격이 재구성되는 변용적인 표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다른 개체의 의미를 흡수하여 또 다른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유동성과 모호한 경계로의 개방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표 8> 중성적 공간의 경계확장성을 통한 다질성의 특성

대표 사례				
				
특성	다질성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각적 경계면 형성 • 중심성의 해체를 통한 확장적 경계 • 시지각적 다양한 사건 생성 • 유기체적 이미지 형성 • 유연성을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 • 관찰자간의 다층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사건의 재구성 		
	다질성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체적 이미지 생성 • 자기 반응적 생성 • 비선형적, 면적인 형상을 통한 공간성 • 유기체적 이미지 • 내·외부의 관계성 확장 • 경계확장을 통한 의미생성 		

감각의 주체인 관찰자들은 연속적인 시지각적 관계를 통해 의미의 확장과 새로운 관계의 생성 및 조합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건축적 표피의 다질성은 개개의 요소들의 비물질적인 내재적 복수성과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

계의 확장성으로 인한 다중심적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건축적 표피의 다질성에서 보여지는 중성적 공간의 경계확장성은 주변과의 맥락적인 연결성, 다중적인 힘들과 외부 환경과의 중첩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건축적 경계를 시각적으로 소거하여 주변과의 연속성을 갖는다. 불확정적 경계면으로서의 표피는 가벼움을 지향하는 비물질성과 함께 중심성의 해체, 중력·부피감에 대한 저항이며, 시·지각적 경험에 의해 전달되는 적극적인 접기의 방식등을 통해 상징적인 이미지를 생성한다.

4.3. 관계적 표피의 다중성

관계적 표피는 단순히 표면에서의 작용뿐만 아니라 관찰자로부터 공간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건축-자연의 상호작용적 관계의 잠재성을 내포한 하고 있다. 이는 건축의 내부와 외부의 공간에서 다양한 체형적 요소를 제공한다. 표면을 통해 다양한 특질을 통합하고, 변화가능한 유연한 의미생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9> 관계적 표피의 다양성을 통한 다질성의 특성

대표 사례				
				
특성	다질성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적 경계의 소멸을 통해 나타나는 공감각적 지각 특성 • 다양한 시지각적 영역 연계와 행위 유발 • 프로그램을 표면을 통해 노출시켜 가변적인 시각적 경계면 형성 • 감각적 표현의 대상으로서의 강조되는 물질적 실재감 • 중심성의 해체를 통한 확장적 경계 		
	다질성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의 실체가 중첩·병치 되어 단일상 획득 • 다양한 행위를 유발하는 잠재성 • 혼성적인 감각을 통한 내·외부의 상호작용 • 유기체적 이미지 • 다중적인 커를 통한 체형적 요소 형성 • 표피자체의 공간성과 프로그램 생성 		




건축적 표피의 다중성은 건축의 내·외부의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관계성에 주목하여 내부에서 다층적으로 작동하는 힘과 프로그램들이 내·외부로 상호작용하는 표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각적 표현의 대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강조되는 물질적 실재감은 물성을 통해 드러나는 시각적 경계면에 대한 감각적 인식과 경험을 하게 된다.

4.4. 유동적인 표피의 상호침투성

유동성을 내포한 표피의 상호침투성은 단지 비정형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내외부의 관계성의 확장을 통한 방향성을 갖는 상호 침투적인 내적주름으로 작용하

게 된다. 이는 내·외부의 경계를 없애고, 그동안 분절적으로 취급되어온 건축적 요소들의 의미론적/실재적인 특질들이 건축적 표피를 통해 연속성을 가지며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표피의 유동성을 띄게 되고 장소와 공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관찰자로 하여금 새로운 의미의 표면으로 재해석되는 것이다. 유동적인 경계로서의 건축적 표피는 시간, 행위 또는 다양한 외부조건에 개입으로 인해 경계 자체가 내·외부와 유연하게 반응하며 상호침투적인 성격을 가진다.

<표 10> 유동적인 표피의 상호침투성과 다질성의 특성

대표 사례				
				
특성	다질성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성의 해체를 통한 확장적 경계 다층적인 커를 형성하여 다양한 행위 유도 상호침투로 인한 내적 주층의 상징성 시각적 부유를 통한 경계면의 확장성 		
	다질성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합체적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사건 생성 건축적 요소의 변형을 통한 혼성적 관계 형성 자기 반응적 생성 내·외부의 관계성을 확장하는 매개적인 역할 콜라주적 이미지 형성 관찰자와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차이 생성 유기체적 이미지를 통한 사건 발생적 구조 무의식적 공간의 이미지 생성 		

이러한 유동적인 경계로서의 건축적 표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장소로서의 경계가 된다. 경계로서의 건축적 표피는 내·외부의 관계를 확장하고, 매개적인 역할과 함께 표면의 기능들을 건축물의 내부로 전이시키면서 또 하나의 시각적 스킨으로 내재적 가치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건축적 표피를 통해 연속적으로 결합된 상호침투적인 유동적인 경계면을 생성해 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4.5. 이미지 생성체로서의 표피

현대건축의 이미지생성체적 표피는 재료의 구축을 통한 물리적 건조 환경을 건축적 표피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요소간의 관계에 따라 지속적인 의미 생산과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미지가 투사되고, 중첩되는 스크린이자 동시에 주변 환경에 대한 감응체로서¹⁸⁾ 의미를 생성하는 다질성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관찰자의 상상력에 기반한 제3의 공간을 형성시켜 고정적이지 않고 유연한 건축의 틀로서 건축적 표피의 형성을 의미한다.

18) 권영길, 공간디자인 16강, 국제, 2001, pp.60-81

이미지 생성체로서의 표피는 사회적·문화적·장소적 맥락으로서의 혼성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단순히 표피 자체의 특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감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내재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관찰자로부터 새롭게 재해석되어 잠재적인 의미의 확장과 새로운 시지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적 영향을 만들어낸다.

<표 11> 이미지 생성체로서의 공간구현과 특성과 다질성의 특성

대표 사례				
				
특성	다질성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시지각적 영역 연계와 행위 유발 다층적인 주관이 상호작용하는 시각적 경계면 형성 시각적 부유를 통한 경계면의 확장성 새로운 네트워크형성과 연속성 		
	다질성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합체적 이미지 생성 내부의 이미지와 표면이 다층적인 관계형성 다수의 다층의 주관이 상호작용하는 상징성 다층적인 힘들의 매개체로서 통한 유동적 프로그램 발생 잠재적 의미의 확장과 새로운 시지각적 경험 발생 깊이감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내재 		

현대건축에서 생성되는 건축적 표피의 다질성은 그 자체가 다른 통합된 여러 표면들이 보조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들을 가지게 되며, 다층체적인 인터페이스로 복잡성을 띄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건축적 표피는 고정적이지 않고 유연한 건축의 틀로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인식적 경계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감각을 유도하며 새로운 경계면을 형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의 생성과 의미를 발생하는 다질성의 특성을 통해 관찰자의 지각에 의한 재해석을 기반으로 다층적인 관계 형성과 다양한 상호작용의 경계면으로서 그 의미와 역할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현대사회에서 건축의 표피는 그 안에 내재된 다질성으로 인해 기존의 건물을 바라보는 방식자체를 변화 시키며, 경계의 영역을 확장시키게 된다. 이러한 경향들은 기능과 의미의 복합체로서 건축적 표피의 역할을 통해 실제와 허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또한 관찰자의 상상력에 기반한 제3의 공간을 형성시키는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면의 물성변화와 착시효과로 시지각적 인식의 혼동을 일으키고, 다양한 효과와 기능을 유도하

는 방향으로 전개 되고 있다. 가공되어진 이미지나 건축의 변형을 통해 원경에서 보이는 건물을 비물질적인 시각적 표면으로 해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로 덮여진 시대에서 건축적 표피는 원래의 물질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다른 물질성을 드러내며, 이미지를 생성하는 의미발생기체로서의 새로운 표면을 형성하고 있다.

표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경계면을 중심으로 내·외부의 개별적인 형태요소들이 개념관계의 다양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기체적인 특성을 동반한 유동적인 표면의 특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건축적 표피의 유동성은 불확정성, 비결정성, 예측불가능성으로 특징지어지며, 사용자의 행위가 반영된 구조/공간의 관계변이를 통해서 유형화된 프로그램의 재정립과 그 의미와 경험의 확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나아가 표면을 통해 재구성되는 혼합체적 이미지들이 환영적인 표면을 형성하고, 내적인 속성들의 복수성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복수적인 특질들이 유동적인 행위와 사건을 만들어 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인식변화로 인한 새로운 경계면의 특성은 공간에서 어떠한 중심이나 위계가 없는 의미의 중첩을 만들어 내며 다질성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환영적 표피로서의 다질성의 특성은 표피의 필터적 기능으로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즉각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며, 끊임없이 의미구조를 발생시킨다. 또한 시지각적 인식의 혼동과 다양한 효과를 유도하며, 건축의 통합성과 비확정적이고, 비완결적인 표피로 의미가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질성의 특성은 건축의 실체가 겹치면서 관찰자로부터 내·외부가 하나의 혼합체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현상을 야기한다. 또한 혼합체적인 이미지는 내적 특질들이 그냥 파편화되어 분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연속적인 계열화를 이루며 유동적인 경계면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적 표피는 기술적이고, 상호·교환적인 역할을 하는 복합체로서 그 의미와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경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면서 건축적 표피는 더 이상 건축의 부차적 산물이 아닌 유동적이며, 내적복수성을 통합시키는 유연하고 불확정적인 경계영역으로서 작용되고 있다. 건축적 표피가 형성하는 경계면을 중심으로 건물을 이루는 개개요소들이 관찰자들에게 표면으로 인식되고 그러한 혼합체적인 이미지 자체가 건축적 표피의 다질성을 통한 경계확장성을 보여준다. 다질성을 통한 경계면의 확장적인 모습은 다양한 층위들이 일체화 또는 중첩되어 관찰자들로 인해 재해석 되는 그 순간이 건축적 표피로 인식된다. 공간뿐만이 아니라 경계면 자체가 유동적이고, 이중적 켜의 형성을 통해 건축 내부요소들의 다양한 배열들을 보여주는 투사적인 성격 자체가 건축적 표피로 인식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내부공간, 구조등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관찰자들은 표면

자체가 공간성을 지닌 경계면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시각적·공간적 체험과 특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축적 표피는 내·외부의 관습적인 관계를 벗어나고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보와 요소간의 관계를 내재적 복수성의 통합을 통해 새로이 재배치하여 새로운 삶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중요성을 가진다.

건축표피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다질성의 발현은 건축의 질을 강화시키는 주요한 개념이자 도구가 되고 관찰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건축에서 경계면이 복합체적 역할과 함께 도시와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만들어 내는 주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로인해 건축적 표피가 시각과 감각의 구성 요소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며, 도시, 사용자 그리고 관찰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는 매개체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정인하, 현대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2. 권영길, 공간디자인 16강, 국제, 2001
3. Bart Lootsma, Diagrams in Costumes, A+U 9903, 1999
4. Juhani Palssasmaa, The Eyes of the Skin, 건축과 감각, 김훈역, spacetime, 2013
5. Leatherbarrow, David, Mostafavi, Mohsen, 표면으로 읽는 건축, 송하엽·최원준 역, 동녘, 2009
6. Greg Lynn, Folds, Bodies & Blobs : Collected Essays, 티베카, 1998
7. Toyo Ito, On Fluid Architecture, SITE, 1991
8. Sou Fujimoto,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정영희 역, 디자인 하우스, 2012
9. 김락훈, 램 쿨라스 건축의 다질성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 석사논문, 2005
10. 손화정, 공간 이미지 표현으로서 표층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2
11. 한태권, 이토도요 건축의 공간구성에 나타나는 '유동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3
12. 강혁, 근대주의 이후의 건축 공간의 변모, 건축역사연구, 제16권 2호, 2007.4
13. 임동연, 들뢰즈의 사건을 중심으로한 폴딩건축의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18권 9호, 2002.10
14. 서승현, 유기적 경향의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불확정적인 경계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0권 1호, 2008.5

[논문접수 : 2014. 10. 30]

[1차 심사 : 2014. 11. 19]

[2차 심사 : 2014. 11. 27]

[게재확정 : 2014. 12. 15]